

불교와 미학

동아시아 사찰 건축

열린 공간, 사찰 건물 배치의 묘미

건축물은 나무나 돌, 시멘트, 유리 등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물성을 갖는 사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부에 빈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텅 빈 공간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이지만, 이를 통해 다시 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건축물은 원래 하나였던 공간을 구분하여 안과 밖이라는 두 개의 공간을 만들어내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 구조화한다.

서양의 건축물들은 그 견고한 물성으로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안전하고 항구적인 내부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압도적인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과시하는 데 관심을 둔다. 이처럼 견고한 요소와 같이 자연의 위협과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의 거주자를 보호하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건축물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물성이 강조된다.

반면 동아시아의 건축물은 자신의 물성을 과시하기보다 안과 밖을 소통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춘다. 건축물은 안과 밖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내부의 거주자를 보호하는 시설물이기보다 안과 밖을 다시 연결시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준다. 사찰의 마당이나 누정은 안과 밖을 중첩시키고 소통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건축물은 인간과 자연을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적인 존재로 화해시킨다.

일반적으로 종교건축의 형식은 종교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상징성을 강조한다. 내부 뿐 아니라 외형도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데, 기독교 교회 건축과 비잔틴 성당, 이슬람 모스크는 첨탑이나 돔과 같은 종교적 상징성을 갖는 구조물이 건축의 형식을 결정한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종교적 상징성이 넘치는 장식물들이 건물 외벽을 장식한다. 주 건물과 달리 성직자들이 거주하는 부속건물은 소박하게 일관적인 건축물 양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성소인 주 건물과 성소가 아닌 부속건물은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동아시아 사찰건축은 일반 건축과 마찬가지로 기둥, 보, 도리의 구조로 건축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종교적 상징성도 개입하지 않는다. 천장고 처마에 집중되는 장식적인 요소들 역시 종교적 상징성을 지니지 않는 까닭에 외형적으로 일반 건축과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세속 건축물인 궁전건축과 유사하다. 불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승려들이 머무는 승방도 건축 형식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동아시아의 사찰 건축물의 기둥과 위계는 그 건물의 위치와 다른 건물과의 관계, 그리고 내부 공간의 구성에 따

라 결정된다.

대개 진입부에는 문, 창고, 객사 같은 부속건물이 위치하고 중간 구역에는 승려들이 생활하는 승방이 자리 잡는다. 최정상부는 불전과 기타 전각들이 있으며 사찰의 성격에 따라 선방이나 조사실, 산신각이 불전 뒤편에 위치하기도 한다.

사찰 공간의 분절과 연결은 단일한 건축물 내부의 분할이 아니라 기, 도, 묘자 형태를 겪고 이어진 여러 건축물에 의해 형성된다. 사찰 진입부에서 불전이 위치한 정상부까지 이어지는 주축선은 공간적인 연속성과 상승감을 통하여 종교적인 깊이를 만들어내며, 주축선 좌우로 확장된 영역은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개방적인 공간을 만든다.

이런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전통 사찰 건축은 종교적 상징성보다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다. 사찰 건축물은 불전이든 승방이든 부속건물이든 큰 차이가 없으며, 공동체의 성원뿐 아니라 외부의 내방객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깊은 산중에 위치했지만 전통 사찰도 외부에 대해 폐쇄적이지 않다. 예를 공간은 불교적 상징 질서에 따른 위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승려들의 생활 영역은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중정으로 연결된 공간 구성은 일정 정도 외부의 불청객의 방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향상성을 유지하는 닫힌 공간이면서도 구성원 상호간의 소통이 가능한 열린 공간이다. 또한 예를 공간이나 그 밖의 다른 영역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내방객의 출입도 허용된다. 따라서 재가신도들이 시주물을 전달하거나 스님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승방을 출입하는 것이 차단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님들의 생활과 수행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찰 건축구조는 승가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탁마하고 경책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바로 그 기초에 불교의 율장 정신이 있다.

율장에는 승려들이 승방 안에 있을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원이 탁발이 용이하도록 도심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재가신도들이 승원을 방문하는 일도 잦았다. 그들은 스님들에게 드릴 공양을 가지고 오거나 여러 가지 시주물을 전달하기 위해, 때로는 단순한 공금증에서 승원을 방문하여 스님들의 생활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재가신도들의 자유로운 승원 출입이 거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승방의 문을 닫지 말라는 계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제정한 이유를 짐



불국사 회랑에서 극락전으로 넘어가는 길(사진 왼쪽). 이렇게 사찰 건축은 안팎을 나누는 것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승 구성원이 모여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큰방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다.(사진 오른쪽)



서양 건축물 안팎 구분

항구적 내부 공간 역할

東亞 사찰 건축 소통 중심

인간·자연 상호적 존재로 화해

間 구조로 열린 공간 지향

변용성, 공동체 생활 가능케 해

작해본다면, 아마도 출가자든 재가자든 사부대중이 자유롭고 격의 없이 소통하고 서로 지킴이가 될 때 승단의 청정이 유지되리라 판단 때문일 것이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열린 승가만 청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사찰 건축물들은 대중 스님들 사이의 위계를 강요하기보다 친밀한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사찰 건축의 내부 공간은 다의적이며 변용의 폭이 매우 넓은데, 이와 같은 가변성은 기둥, 보, 도리로 이루어진 간(間) 구조 덕분이다. 간(間)의 크기는 두 개의 기둥 사이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며 간들로 구성된 건물의 내부 공간을 어떻게 구획하고 무엇을 배치하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성격, 즉 불당인지, 선방인지, 개인 방사인지가 결정된다.

간(間)은 건물의 내부공간을 단일한 단위로 구획한다. 따라서 내부 공간은 단순하고 일관된 공간성을 얻게 되는데, 그에 따라 공간의 다양한 쓰임도 가능해진다. 불단을 설치하고 불상을 안치하면 불당이 되고, 바닥에 좌복을 깔고 참선을 하면 선방이 되고, 발우를 펴고 공양을 하면 식당이 되고, 침구를 펼치면 침실이 된다.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한옥의 이와 같은 가변성은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으로서 최근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대중스님들이 대방 또는 대중방의 가변성은 매우 크다. 대방은 내부 공간을 나누지 않고 그때그때 대중스님들이 모여 예불과 공양, 강학과 참선, 포살과 자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한다. 인법당의 경우, 한 면에 불상을 모시거나 불화를 걸어두고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행하기도 하고 의례를 집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대방은 완전히 텅 비어야 있어야 한다. 좌복이나 이불 같은 물건들을 벽장에 넣고, 발우는 시렁에 놓아둔다. 또 햇대에 가사와 장삼을 걸어 대방의 바닥 뿐 아니라 벽면이나 문에 아무 걸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단순한 공간은 선(禪)의 단순성과 맞닿아 있다.

대방은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하나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모든 장식을 없앤 단순하고 절제된 공간은 조소하고 소박한 선승들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대중과 탁마

하고 경책하는 가운데 무아를 체험한다. 날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나고 부처와 함께 잠드는 가운데 도를 판가름하는 선불장이 된다.

그런데 최근 건설되고 있는 도심사찰에서는 승려들의 위한 대방보다 독방이 선호되고 있다고 한다. 대방이 사라지는 만큼 사부대중이 서로 탁마하고 경책하는 대중 정신도 사라지고 있다.

공간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성격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옥은 그 친환경성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한옥에서 살려면 먼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공간 구성은 전혀 다른 인간관계와 사회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서울에 살던 스님이 시골 절에 와서 살았다. 외출을 하러다가 말고 불평을 터트렸다. "이 미담이문을 어떻게 잠가야 해요?" 시골 스님이 대답했다. "뭘 보물이 있다고 잠그고 다녀요!" 시골 절에 살던 스님이 서울에 왔다. 습관대로 문을 열어두고 외출했다. 서울 스님이 말했다. "문 좀 잠그고 다녀요! 어제 옆집에 강도가 들었대요." "..."

잠금장치 하나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사회를 잘 보여준다. 전통 한옥은 문을 안 안에서 잠그는 장소이다. 모든 장식을 없앤 단조로운 절제된 공간은 조소하고 소박한 선승들이 무소유를 실천하고, 대중과 탁마

집을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거는 잠금장치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현대식 잠금장치는 외부에서도 잠글 수 있고 내부에서도 잠글 수 있다. 집이든 재산이든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대식 잠금장치가 필요한 사회는 집에서는 숙식만 해결하고 외출을 자주 하며, 그럴 때 남의 물건이나 생명을 노리는 나쁜 사람이 많은 사회인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한옥보다는 단단하게 잠글 수 있는 요새 같은 집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옥에 살고자 한다면 현대식 잠금장치를 달거나 옛날처럼 마을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도둑이 없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거나 숙박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만나고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통 사찰의 건축적 가치 또한 단청의 화려함이나 처마의 곡선미보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건축의 아름다움은 외양보다 사람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힘이 때문이다.



명법 스님 (조계종 교수사리)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저크지 옻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mm×310mm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흙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 구 성 : 한지날장
- 크 기 : 636mm×313mm

※ 여러종류의 사경책·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흙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 내 지 : 한지 108장
- 표 지 : 레저크지 옻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435mm×300mm

B형-남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정가 1,300원 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정가 1,000원 동남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정가 1,000원 동녀 할인가 170 (600개 이상) 정가 200원

수지영가웃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라니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정가 1,000원 금강경타다라니 할인가 170 (600개 이상) 정가 20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정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정가 7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컬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한지점음 위패(대/소)/인쇄점음 위패(대/소) ※크기 대 6.5×24cm 소 5.3×18.3cm 정가 대30,000원 / 소27,000원 (100개) 할인가 대@270원 / 소@240원 (1000개이상)

한지·인쇄점음영가웃(남/여) ※크기 15.5×19cm 정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 (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